



기후변화와 보험산업의 탈(脫)석탄

손민숙 연구원

기후변화가 큰 위험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자연재해 다발로 인해 보험회사들의 손해가 증가함.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탈 석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요 보험회사들도 동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행동을 취한 보험회사들은 대부분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음. 최근 미국 대형 보험회사인 Chubb가 탈(脫)석탄 정책을 발표함. Chubb의 정책 발표를 계기로 다른 대형 미국 보험회사들에 대한 탈(脫)석탄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탈(脫)석탄 및 기후변화 예방을 위한 보험회사들의 노력이 필요함

■ 기후변화가 큰 위험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자연재해 다발로 인해 보험회사들의 손해가 증가함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2019년 상위 10개의 위험 중 5개가 기후변화 관련 위험이며¹⁾, 기후변화 위험의 주요 원인은 지구온난화임
-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 위원회(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 석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표함²⁾
- 석탄의 경제성은 저하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다발할 경우 손해보험금 지급이 늘어나 보험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므로 보험산업의 탈(脫)석탄 필요성이 증대됨

■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탈(脫)석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요 보험회사들도 동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행동을 취한 보험회사들은 대부분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음³⁾

- 프랑스(2021년), 영국(2025년) 등 현재 23개 이상의 국가와 지방정부가 늦어도 2030년에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선언하였고, 다수의 국가가 공적 금융에 OECD 규칙⁴⁾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탈(脫)석탄 움직임

1) WEF(2019. 1. 6), "The Global Risks Report 2019(14th Edition)"

2) IPCC(2018. 10), "Global Warming of 1.5°C"

3) UnfriendCoal(2018. 12), "INSURING COAL NO MORE(The 2018 Scorecard on Insurance, Coal and Climate Change)"

4) OECD(2015. 11. 27), "Sector Understanding on Export Credits for Coal-Fired Electricity Generation Projects"

임은 공적 금융을 넘어 민간 금융권까지 확산되고 있음⁵⁾

- 유럽 4대 주요 보험회사인 AXA, Zurich, Allianz, Generali는 석탄 관련 보험 인수 및 투자를 제한하였으며, 2018년 거대 재보험회사인 Swiss Re와 Munich Re도 SCOR와 함께 탈(脫)석탄 움직임에 동참함
 - 석탄 관련 보험 인수를 제한하는 손해보험회사의 비율은 2016년 3.1%에서 2018년 7.3%로, 재보험 회사의 비율은 2016년 3.8%에서 2017년 33.4%로 증가함
- 석탄 관련 보험 인수를 철회하거나 보장범위를 축소한 보험회사들은 대부분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음
- 비유럽 보험회사 중에서는 최근 일본의 다이이치생명보험이 탈(脫)석탄 정책을 발표함⁶⁾

■ 최근 미국에서는 Chubb가 대형 보험회사 중 최초로 탈(脫)석탄 정책을 발표함⁷⁾

- 환경단체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국 보험회사들은 탈(脫)석탄 움직임에 참여를 거부하였음
- Chubb는 언더라이팅과 투자에서 탈(脫)석탄하기로 함
 - (언더라이팅) 새로운 석탄 발전소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보험 인수를 중지함
 - (언더라이팅) 석탄 채굴이 수익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의 보험 인수 중지 및 2022년까지 기준⁸⁾을 초과하는 기존 위험에 대한 보장을 단계적으로 철회함
 - (언더라이팅) 에너지 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으로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보험 인수 중지 및 2022년까지 기준을 초과하는 기존 위험에 대한 보장을 단계적으로 철회함
 - (투자) 석탄 채굴이 수익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에너지 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으로 창출하는 회사에 대한 새로운 투자나 자금 지원을 중지함

■ Chubb의 정책 발표를 계기로 다른 대형 미국 보험회사들에 대한 탈(脫)석탄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⁹⁾, 향후 탈(脫)석탄 및 기후변화 예방을 위한 보험회사들의 노력이 필요함

- 최근의 변화들은 긍정적이지만, IPCC가 제시한 석탄 절감 목표량¹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확대 및 심층화가 필요함
- 보험회사들은 석탄을 개발하거나, 석탄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험 인수 및 투자를 줄여나가야 하며, 청정에너지 및 국제 사회와 환경 기준에 맞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해야 할 것임 **kiri**

5) 스탠다드차타드(영국), HSBC(영국), 도이체뱅크(독일), 씨티은행(미국), AXA(프랑스) 등임
 6) 그린피스·기후솔루션·환경운동연합(2018. 10. 1), 「한국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외 석탄금융 중단을 위한 환경단체 공동선언문」
 7) Chubb(2019. 7. 1), “Chubb Coal Policy”
 8) Chubb(2019), “Chubb 2019 Environmental Report”;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 배출량을 2016년 대비 2025년까지 20% 감소, 2035년까지 40% 감소함. 파리기후협약의 2℃ 모델 목표와 일치함
 9) Financial Times(2019. 7. 1), “US insurer Chubb pulls back from coal”
 10) 1.5℃ 모델은 전 세계 CO₂ 배출량을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45% 감소, 2050년까지 100% 감소를 목표로 하며, 2℃ 모델은 2030년까지 25% 감소, 2070년까지 100% 감소를 목표로 함